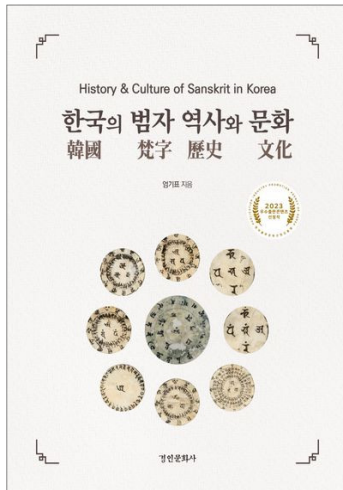


書評

엄기표 지음,  
『한국의 범자 역사와 문화』  
(경인문화사, 2023. 11)

이선용\*



미술사학계에서 범자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자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존재의 有無, 또는 六字眞言처럼 일부 관독 가능한 진언만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에 반해 2010년 이후에는 범자 자체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면서 종교·신앙·예술성을 지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범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엄기표 교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고려~조선시대 梵字眞言이 새겨진 石造物의 현황과 의미」를 시작으로 동경, 기와, 분묘, 腹藏 등 연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자의 현황과 의미,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韓國의 六字眞言』(2018)을 간행, 한국의 밀교 역사를 미술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십여 년에 걸친 자료 수집과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가 바로 『한국의 범자 역사와 문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 흐름 안에서 문자와 언어인 범자, 종교와 신앙의 발로이자 밀교의 사상에 기반한 수행 요소로써 진언 다라니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범자를 ‘미술사와 밀교사’,

\*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미술사와 종교 사상사’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학문의 한 영역으로써 완성하였다. 저자의 통학문적인 시각은 이 책의 ‘지극히 밀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범자 진언 다라니가 불교와 다른 별도의 영역에서 존재하면서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사 안에서 습합되어 전개된 것으로 현교와 밀교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범자 역사와 문화』는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집필되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I 장 ‘범자의 기원과 유래’는 문자와 언어로써 등장한 범자를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인도의 역사 안에서 설명하였다. II 장 ‘범자의 유형과 종류’는 불교가 전래한 지역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나가리·실담·란차·티벳 문자의 출현과 전개, 그리고 이러한 문자들이 한국에 언제, 어떻게 전래되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III 장 ‘한국 범자의 전개’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범자 진언 다라니의 전개 양상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V 장 ‘한국 범자의 역사’와 V 장 ‘한국 범자의 문화’는 한국 범자의 특징을 전장은 역사적 맥락에서, 후장은 불교와 밀교라는 사상적으로 접근하였다. 마지막 VI 장 ‘다른 나라의 범자 문화’는 연구의 대상을 중국, 일본 등까지 확장하여 범자 진언 다라니의 양상을 시대 순으로 서술하였다.

I~II 장이 범자의 등장, 전파와 확산, 그리고 한국으로 유입되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이야기하였다면, III~V 장은 그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 범자 문화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부터 현대, 지역적으로는 인도·네팔·파키스탄·티베트·중국·한국·일본·대만·베트남 등, 분야는 경전·다라니·건축·기와·석조·腹藏·동종·풍탁·향로·정병·동경·도자기·금고·운판·칠기·토기·고분·복식 등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문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과 수량에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않고 종교·사상·역사·문화·서지·미술사학 등 학제를 넘나드는 연구는 범자를 문화와 역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자는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 연구」, 「고려시대 석조부도 연구」라는 주제로 석·박사 학위논문을 취득하였으며, 석조미술의 연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시대, 분야를 넘어선 연구자의 역량과 노력, 다른 학자들과의 교류와 학문적 소통, 그리고 ‘不見不筆’이라는 저자의 신념을 보여준다. 저자가 펼쳐놓은 ‘범자’에 대한 학문적 확장은 한국 미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향후 미술사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들을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새로운 연구 방안을 모색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한국 미술에 많은 관심을 지닌 독자들에게도 한국 문화 예술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